

황조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 승 환*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황조가와 서사시
3. 신화 가능성
4. 문화 배경
5. 황조가의 의미
6. 결 론

1. 문제의 제기

현재의 삶은 과거 선인들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를 교육하는 데는 고전교육이 필수적이다. 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 교육 시행의 이유로 문학 과목은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문학 감상의 주체로서 성장해 가고, 올바른 민족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데 그 교육적 의의를 두고 있다.¹⁾

황조가는 고전 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노래이다.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목표에서 수정되지 않은 바이다.

* 제주대 교수.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1)』, 1992, pp.68~69.

필자는 황조가를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중요성을 밝히려 한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황조가는 서정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서정시²⁾와 서사시³⁾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서사시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이다. 나아가 황조가의 가치를 밝혀 교육현장에서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권제 13 고구려 본기 제 1은 먼저 시조 동명성왕에 대한 기록이 있고 두 번째 유리왕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명성왕 기록은 기이한 출생을 한 동명왕이 천명으로 왕이 되게 된 내력담이다. 그의 아들은 유리왕으로 동명왕이 부여에 있을 때 부인 예씨가 임신을 하고 그가 망명 후 태어난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러한 신분 때문에 동네 아녀자에게 야단을 맞게 되고 이를 계기로 부친을 찾아 나서게 되어 부왕을 만나게 되며 그후 왕위를 계승한다.

기록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몽을 아버지로 둔 유리가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부친을 찾아 왕위를 이었다는 셈이 되며 유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여겨진다. 이어서 황조가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치회를 찾아나섰다가 만나지 못하자 그 아쉬움과 연인을 그리는 감정이 중첩되어 노래된 것으로 여겨 지금까지의 논의대로 황조가가 최초의 서정시라는 데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헌설화나 기록들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는데는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면 역사이다. 하지만 구전되는 사실을 기록하면 설화집이 된다. 삼국유사는 이러한 설화집 중 하나이며, 삼국사기 기록 역시 설화적 요소를 띠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황조가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 역시 사실적 맥락이 아닌 설화적 맥락에서 살펴야 함은 자명하다. 황조가가 최초의 서정시라 하는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는 태도는 설화적 맥락에서 노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한 결과이다.

황조가의 작자는 유리왕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유리왕 한 사람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는 동명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2) 서정시는 이병기가 주장한 이래 일반화되고 있다.

3) 이명선이 주장하여 서정시에 못지 않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황조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구려의 건국주인 동명왕은 신화적 인물이다. 삼국유사 기록이나 삼국사기 기록이나 동명왕편이나 주몽에 관한 기록은 신화라 보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화적 인물인 주몽의 아들 유리왕을 신화적 인물로 보는데는 주저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유리왕의 창작이라는 황조가가 앞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사시인가, 서정시인가 하는 논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화학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서정시가 아닌 서사시임을 전제한 논의이다.

어떤 논의를 하든 기록의 문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황조가에 관한 기록은 작자가 유리왕이기에 그의 부친인 주몽설화를 기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주몽과 유리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 기록 내용은 황조가를 재해석하게 하는 중요 열쇠가 된다.

동명왕 2년(기원전 35) : 6월에 송양왕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므로 왕은 그 땅을 多勿都라 하고 송양을 봉하여 그 주로 하였는데 고구려의 말에, 복구한 땅을 다물이라고 말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유리왕 2년(기원전 18) : 7월에 多勿侯인 송양의 딸을 맞아 비로 삼았다. 9월에 서수하여 흰 노루를 잡았다. 10월에 신작이 왕정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백제시조은조가 즉위하였다.

유리왕 3년(기원전 13) 기록 : 3년(기원 전17) 7월에 離宮을 鵲川에 지었다. 10월에 왕비 송씨가 돌아갔으므로 왕은 다시 두 여자를 계실로 얻었는데 하나는 禾姬로 골천 사람의 딸이고, 하나는 雉姬로 漢의 딸이었는데 두 여자는 사랑을 다투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은 涼谷의 동서에 二宮을 짓고 각각 두었다. 뒷날 왕은 箕山에 田獵을 나가서 7일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여자는 서로 생투하여 화회는 치회를 꾸짖기를 “너는 漢家の 婢妾으로 어찌 무례함이 심한가?” 하니 치회는 부끄러워하면서 원한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치회는 노하며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때 왕은 잠간 나무 밑에서 쉬는데 피꼬리들이 모여 들므로 이에 느끼어 <황조가>를 노래하며 탄식하였다.

이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 유리왕과 송씨 | | | |
| ① 유리 왕위 등극하여 송씨와 혼인 | 혼인 | | 행 |
| 2) 유리왕과 화회 치회 | | | |
| ② 왕비 송씨가 죽다 | 송씨 사망 | | 불 |
| ③ 골천녀 화회와 한인녀 치회를 계실로 얻다 | 계실 얻음 | | 행 |
| 3) 화회와 치회 | | | |

④ 2계실이 사랑을 다뉘 치회는 漢으로 귀환하다.	쟁총	불
4) 유리왕과 치회		
⑤ 유리가 치회를 찾으러 가다.	치회 찾으러 감	행
⑥ 치회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다.	치회 불환	불
⑦ 유리가 황조 노는 모습을 보고 황조가 부름	황조가 작	

이 구성은 크게 1) 유리왕과 송씨, 2) 유리왕과 화회와 치회, 3) 화회와 치회 4) 유리왕과 치회 5) 황조가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모티브는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순차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1) 유리왕과 송씨 : 이 모티브는 유리왕이 송씨와의 혼인과 왕비 송씨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2) 유리왕과 화회와 치회 : 유리왕이 화회와 치회를 계실로 맞아들인 의미는 무엇인가.
- 3) 화회와 치회 : 화회와 치회가 유리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쟁총의 의미는 무엇인가.
- 4) 유리왕과 치회 : 화회에게 쫓겨간 치회를 유리왕이 쫓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4가지가 해결되면 유리왕이 부른 황조가의 의미가 해명될 것이다. 결국 황조가는 배경 설화를 따로 떼어놓고 파악할 수 없는 노래이다. 황조가는 순차적 구조로 된 배경설화의 종합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유리왕이 주몽의 아들이기에 주몽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신화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이 목적은 황조가 배경설화의 신화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황조가에 대한 서사시와 서정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설화의 신화적 면모를 보인다. 그리하여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는지를 살핀다. 신화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 되면 자연히 황조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2. 황조가와 서사시

지금까지 이 황조가를 해석하기 위해 논의된 관점은 황조가가 서정시인가, 서사시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1) 서정시의 경우

서정시로 보는 관점은 유리왕을 실존인물로 전제해야 가능한 해석이다. 이병기는 원시적 서사문학 가운데서 祝禱 또는 기원의 요소적인 부분이 분화 독립하여 서정시로 형성되었다고 한다.⁴⁾ 이는 황조가를 포함한 서사문학이 있었고 그것이 후대에 전승되면서 다른 요소가 제거되어 황조가란 노래만 전승되면 서정시로 남게 된다는 말이다. 서정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조가의 경우, 개연성은 있지만 서정시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오늘날 조사되는 서울 열두거리굿 무가의 ‘노랫가락’, 또는 초망자굿의 기다란 사설 중 일부는 서정무가로 독립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무가는 교술, 서정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니 이를 따로 떼어놓아 이것은 교술이요, 이것은 서정시라 할 수는 없다. 결국 황조가만을 따로 떼어 내어 서정시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향가를 논의하면서 배경 설화를 무시하고 노래 자체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고대가요는 배경설화를 포함한 문맥 속에서 감상해야 한다.

김동옥은 서사시 가운데의 삽입가요로서 한족과의 항쟁을 그린 서사시 중에서 남은 노래로 보았다.⁵⁾ 이것은 앞의 이병기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서사문학 중 한 부분의 기록임을 보여준다. 권영철은⁶⁾ 기사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유리왕이 왕비를 맞기 이전인 미혼시절의 고독을 노래한 서정시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이는 왕이 잠깐 나무 밑에서 쉬는다는 기사의 “嘗”을 일찍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황조가가 지어진 시기를 유리왕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왕위에 즉위한 후부터 왕비 송씨를 맞기 직전 사이로 본다. 이는 계절적 제례의식에서 베풀어지는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회에서 불려진 사랑의 노래로, 거절당한 남자의 애절한 구애곡으로 추정⁷⁾하는 정병욱의 견해와 동일하다. 이는 신화적 인물이 서정시를 노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유리왕을 실존인물로 보는 견해들이다.

4)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9.

5) 김동옥, 『국문학사』, 일신사, 1976.

6) 권영철, 「황조가 신연구」, 『국문학연구』 1호, 효성여대 국문과, 1968

7) 정병욱, 「한국시가문학사」(상),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7.

2) 서사시의 경우

서사시의 관점은 무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상당히 타당성을 갖고 있다. 서기 기원을 전후하여 서사시에서 서정시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있고 황조가는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립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서사시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명선은 화회, 치회 싸움을 종족간의 대립을 반영한 사건으로 보아⁸⁾ 신화의 해석에 증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관점은 김승찬에 의해 정리된다. 그는 황조가의 작자를 당시 한 부족장으로 보고 그것이 후대에 유리왕 작으로 오인되어 역사 기술에 채록된 것으로 보았다. 그가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요소와의 관련시킨 점은 탁견이라 하겠다.⁹⁾

이어 조동일은 짝을 구하는 노래라는 정병욱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유리왕이 작자라는 점은 밝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리왕을 신화적 인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황조가는 유리왕이 구애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적 스토리를 갖는 이야기 속에서 부른 노래의 한 부분이 된다. 이는 신화시대를 돌아보면 타당성을 갖는다. 그는 한국소설의 이론에서 유리왕 시대는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로서 전설, 민담의 시대로 이행해 가는 시기라 하였다.¹⁰⁾ 신화시대는 주몽에서 끝난 것이며 유리왕은 신화적 능력을 가지고 주몽설화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뿐 계속해서 신이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 유리왕이 겪은 고난 즉 예를 들어 부여와의 싸움, 화회, 치회의 다툼, 태자인 해명을 죽게 한 일 등 일련의 사태들은 자아와 세계와의 동질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데서 온 혼란이라고 보았다. 바꿔 말하면 유리왕 시대는 신화시대인 주몽시대를 지나 가치관이 혼란되면서 통치 이념이 옮겨가는 시기로 보이며 그러한 사실의 상징적 표현이 황조가 배경설화인 셈이다. 이 견해는 고대가요를 살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8)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9) 김승찬, 「황조가의 신고찰」, 『국어국문학』 9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9.

1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3. 신화 가능성

유리왕이 주몽을 이은 고구려의 통치자이지만 주몽 시대는 신화시대요, 유리왕 시대는 가치관이 혼란되는 시기로 전설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했는데 이를 좀 더 검토해 보자. 이 논의가 분명해지면 화회와 치회의 쟁총과 유리왕이 부른 황조가의 의미가 분명해 질 것이다.

김승찬은¹¹⁾ 유리왕에 관한 우리측 사료나 중국측 사료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실존인물이 아닐 것으로 보고, 유리왕과 관련된 기술물의 여러 화소가 역사의 여명기에 활동한 영웅들의 것을 차용하였고, 국사대사전¹²⁾에서도 유리왕의 사료에 신빙성이 약하다고 하고 있음을 들고 신화적 인물로 본다. 하지만 이는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앞에서 황조가의 작자는 유리왕이며 유리왕의 부친은 주몽이므로 황조가를 논의하는 데는 주몽과 유리왕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를 해야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건국주로서 신화적 인물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지만 그 아들인 유리왕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신화적 인물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최고의 국조신화로 추앙받고 있는 단군신화는 신의 계보를 통해 부계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다.¹³⁾ 천제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정에 내려와 곰이 처녀로 변한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다.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고 다스리다가 1908(?) 세에 다시 태백산으로 돌아가 신이 되었다고 한다. 단군의 아들이 누구라고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신격화되었고 엄연히 국조신화로 자리잡고 있다. 고구려 건국주인 주몽은 천제의 자인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나 고구려를 건국하고 국조신이 되었다. 이러한 국조신화의 가계는 오늘날의 무가인 제석본풀이에서 그 구조를 잇고 있다. 제석본풀이는 제석신의 유래담으로 제주도에서는 초공본풀이로 전승된다. 초공본풀이는 심방들 사이에서 '신불리'¹⁴⁾라 하며 최초의 무당이 된 초공

11) 김승찬, 『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pp.8~22.

12) 李弘植 編, 『國史大辭典』, 知文閣, 1963, p.1398.

13)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년, pp.89~94.

신의 내력담이다. 초공신의 할아버지는 석가여래, 아버지는 황금산도단땅의 주자선 생이며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와 혼인하여 초공 3형제를 낳는다.

이들 국조신화 계통의 계통은 祖父孫이라는 관계로 이어지며 지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孫임을 알겠다. 단군, 주몽, 초공으로 정리되는 지상의 통치자는 신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다. 단군은 꿈이 변한 사람 웅녀에게서 태어났고 주몽은 수신 하백의 딸인 유화에게서 태어났으나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다. 초공 역시 인간으로 대접받다가 유씨부인을 통해 굿하는 기구인 신칼, 천문, 상잔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고대 신화는 하늘에서 천제의 아들이 지상으로 하강하여 천의 원리와 지의 원리가 결합하여 태어난 존재가 지상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리왕은 이러한 국조신화의 혈연원리와 다르다. 주몽까지는 국조신화의 혈연원리와 상통하지만 유리왕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몽시대는 신화시대이지만 그의 아들 유리왕 시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신화시대는 국중 대회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이룩하고 흔들리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부여에서 남하한 부족이 기존에 정착하고 있던 송양국을 정복하고 그들과 갈등 없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신화가 보장해 주었다. 이것은 신화가 갖는 중요한 기능이다. 김열규¹⁵⁾도 유리왕의 여러 행위들은 부왕 주몽이 행한 일의 모방적 행위로 고구려 왕권계승에 있어서 유리왕대까지는 신화의 유영이 끼쳐져 있다고 하여 바로 신화시대가 아니라 그 유영이 끼치는 시대임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유리왕 시대가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대로서 전설, 민담의 시대로 이행해가는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동일¹⁶⁾ 신화시대는 주몽에서 끝난 것이며 유리왕은 신화적 능력을 가지고 주몽설화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뿐 계속해서 신이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리왕이 겪은 고난 즉 예를 들어 부여와의 싸움, 화회, 치회의 다툼, 태자인 해명을 죽게 한 일 등 일련의 사태들은 자아와 세계와의 동질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데서 온 혼란이라 보았다.

14) 신의 근본을 알 수 있는 뿌리라는 뜻.

15)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2, pp.110~115

16) 조동일, 앞의 책.

4. 문화배경

주몽은 신화적 질서가 유지되던 시대의 건국주이지만 우리는 그 질서가 흔들리고 신화의 원리가 통치원리가 되던 시대로부터 신성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가치관의 혼란된 시기로 대표되는 인물임을 밝혔다. 다음은 황조가를 비롯한 배경설화가 생성된 문화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어떠한 문화현상이 설화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는가를 밝혀야 한다.

황조가의 배경설화를 간략히 하면 주몽을 이은 유리왕이 왕비 송씨와 혼인하고 골천에 이궁을 지었는데 얼마 없어 왕비 송씨가 죽자 골천인 화회와 한인 치회를 계실로 맞아들였으나 둘은 다투다가 유리왕이 사냥을 나간 사이 치회는 화회에게 쫓겨 漢家로 돌아가 버렸다. 유리왕은 화회에게 쫓긴 치회를 찾아나섰다가 황조가를 불렀다.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인 화회와 치회이다. 김승찬은 황조가를 논하면서¹⁷⁾ 당시 한 부족장의 작품인 것이 후대 유리왕 작으로 오인되어 역사 기술에 채록된 것이라 하고, 유리왕과 황조가의 작품 내용, 화회, 치회에 관한 기사 상호간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유리왕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난점들은 황조가 배경설화의 문화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해명될 것이다.

김승찬은 앞의 글에서 배경설화가 직접적으로 유리왕과 관련은 없지만 更娶二女以繼室 기사를 고구려 건국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반영한 설화로 보아 문화배경의 중요성을 미리 제기하였다. 그가 설정한 대로 화회는 벼를 뜻하는 이름으로 농경문화를 의미하고, 치회는 꿩을 뜻하는 이름으로 수렵문화를 의미한다.

旗田巍는 『조선사』에서 “고구려족은 만주에 있던 부여족의 한 支族인데, 원래는 松花江의 유역에 살고 있었으나 기원전 2세기경 동쪽으로 옮겨 修佳江 유역으로부터 鴨綠江 중류에 걸친 산곡지대에 살면서 수렵생활을 하였다”¹⁸⁾고 하여 고구려 건국시는 수렵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주몽이 활을 잘 쏘는 인

17) 김승찬, 앞의 논문.

18) 旗田巍, 『朝鮮史』, 岩波書店, 1963, p.15. 김승찬, 앞의 논문 재인용.

물이라는 점도 수렵문화의 잔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몽은 비류수 중에 菜葉이 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수렵을 하면서 찾아가 비류국 송양과 궁술 경기를 벌려 복속시킨다. 이때 송양이 통치하던 비류국은 농경생산경제체제 위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부족국가이다. 수렵생활을 하는 주몽이 무력으로 토착 농경 세력을 복속시켜 공존한 셈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화적 질서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리왕은 이러한 신화시대 속에서 부왕을 이어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다. 수렵생활을 위주로 하는 주몽 세력과 농경 정착을 하던 송양왕의 비류국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은 것은 당연하다. 유리왕은 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즉위 2년(기원전 18) 7월 골천인 송씨를 왕비로 맞아들인다. 이 혼인은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음 해 10월 왕비 송씨가 죽고 골천인 화희와 한인 치회를 계실로 맞아들였다. 왕과 왕비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왕은 수렵문화를 대표하고 왕비는 농경문화를 대표하는데 그 왕비가 죽고 농경문화를 의미하는 화희와 수렵문화를 의미하는 치회를 계실로 삼았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과 왕비가 공존하는 것은 국가가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수렵문화 생활자인 유리왕과 농경문화 생활자인 송씨의 혼인은 양 세력의 공존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때 왕비 송씨의 죽음은 세력간에 불균형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송양을 추종하던 세력의 소멸을 뜻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유리왕이 골천에 이궁을 지음으로써 세력의 중심지는 골천으로 옮겨졌다. 계실인 화희 역시 농경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왕비가 되는 주몽세력은 되지 못할 망정 계실로서 왕비 송씨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송씨의 농경문화와 동일한 골천의 농경문화를 수용하자 수렵문화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통치권 역시 신화시대를 배경으로 신화의 원리로 질서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유리왕은 같은 수렵문화 종족인 한인의 딸을 아내로 삼는다. 토착 세력인 농경문화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화희에게서 쫓겨간 치회를 유리왕이 직접 찾아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분명해진다. 유리왕은 7일 동안의 수렵 후 치회가 화희와 다뿔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희에게는 한 마디 말 없이 치회를 찾으러 갔다. 이는 치회에 대한 사랑이 화희에게 보다 강했음을 말해

함조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준다. 수렵문화 추종 세력의 대표자인 유리왕은 농경문화 추종세력 보다 같은 수렵문화 추종세력을 원했던 셈이다. 문화적으로 보면 유리왕의 수렵문화와 치회로 대표되는 수렵문화가 상통한다.

유리왕은 주몽의 수렵문화를 이어받은 원자이다. 그래서 화회와 치회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수렵문화 쪽에 기울어져 있다. 7일 동안의 사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가 수렵문화를 추종하려 할 때 화회와 치회로 대표되는 양대 문화 세력은 갈등을 일으킨다. 유리왕의 총애를 받기 위한 것이 그 이유다. 유리왕의 사랑은 어느 문화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인다. 화회를 택하면 중심 세력은 농경문화가 될 것이요, 치회를 택하면 수렵문화가 될 것이다. 농경문화와 수렵문화 세력의 공존을 바라는 유리왕 입장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동서 양쪽에 궁을 만들어 공존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지로 상징되는 여성인 두 여자는 서로 자신의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치회는 화회의 “무례하고 비천한 칩”이라는 말을 듣고 漢으로 돌아간다. 수렵문화가 농경문화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의 상징적 표현이다. 유리왕은 수렵문화를 추종하는 세력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유리왕 시대는 고구려 부족국가 발전과정에서 수렵경제생활체제로부터 농경생산경제생활체제로 발전되어 가던 시기¹⁹⁾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동일의 지적대로²⁰⁾ 자아와 세계와의 동질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신화시대로부터 전설, 민담 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평가할 만하다.

이상의 결과로 유리왕은 주몽처럼 주도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처지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신의 계열마저 통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됨으로써 분명해졌다. 이 질서를 정돈하여 부부관계가 안정된 가정으로 이끈 것은 화회이다. 유리왕의 수렵문화는 부친인 주몽시대부터 공존해 왔으므로 수용할 수 있으나 외부의 수렵문화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쟁쟁의 의미이다. 화회로 대표되는 토착농경민들의 의지의 표현이 치회를 꾸짖어 돌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설화의 상징적 의미는 토착민인 고구려인의 승리요, 외세의 패배이다.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 의식이 강하게 대두된 설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듯이 백성이 뜻이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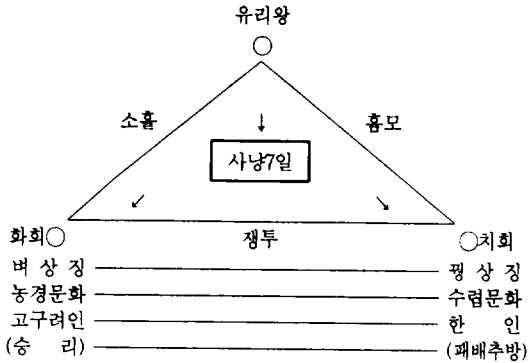
19) 김승찬, 앞의 책.

20) 조동일, 앞의 책.

을 있게 한다. 유리왕은 수렵문화 추종자이지만 백성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 화회가 토착 농경민을 대표하고 치회가 수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외세를 대표하는데 설화 수용자가 화회를 승리자로 만든 것은 농경문화를 국가 경제의 대본으로 수용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유리왕은 주몽에게서 이어받은 수렵과 농경의 공존 문화에서 백성의 뜻을 따라 농경문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표로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황조가 배경설화구조



5. 황조가 의미

이렇게 볼 때 황조가는 배경설화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배경설화 속의 상징적 의미를 압축한 노래인 셈이다. 한 남성이 두 여성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다 부른 사랑가가 아니다. 황조가가 당시의 혼란된 문화 현상을 반영한 서사적 스토리 속의 삽입가요로 볼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때 그런 노래가 불러졌을까.

황조가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민속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몇 가지 추정이 가해져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황조가가 유리왕에 의해 불러졌고, 그 배경설화는 문화 현상의 반영이라는 점밖에 알 수 없다. 추정의 열쇠는 작자인 유리왕에 있다.

제정일치 시대의 통치자는 왕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였다. 고조선의 건국주인 단군이 통치자이면서 사제자이고, 남해왕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유리왕 또한 같

황조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은 부류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추정이 가능하다면 7일간의 사냥은 수렵문화의 기반 위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럴 경우 7일간의 사냥은 산신에 대한 의례 행위의 상징적 표현이 아닐까. 사냥을 하여 잡은 첫 제물은 산신에게 바쳐진다. 농경민족들은 토지신을 위한 의례를 행할 때 수확하는 햇곡식으로 토지신에게 공양한다. 이렇게 보면 유리왕이 부른 황조가는 산신의례를 행할 때 무당인 유리왕이 불러던 무가 본풀이 중 삽입가요가 된다. 그러면 유리왕 작이라는 기록과도 일치하고 배경설화와 황조가가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병욱이 계절적 제례의식에서 배우자를 선정할 때 불러진 사랑의 노래로 보는 것²¹⁾도 무가임을 암시한 것이며, 이 견해를 이은 조동일이 청춘남녀가 짝을 찾으려는 부른 노래로 보면서 실제 그런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의례의 존재를 암시한 것이다. 허남춘²²⁾은 왕비 송씨의 죽음은 재생제의를 상징하고, 죽음을 거쳐 부활하는 지모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화회치회 설화는 송씨의 죽음과 재생 사이에 거행되는 제의의 구체적 과정의 표현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송씨는 할미, 화회 치회는 젊은 여자인데 화회는 농경의 시간(계절), 치회는 수렵의 시간(계절)으로 보고 이들의 대립을 봄 가을 : 겨울의 대립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주 인물을 화회와 치회로 상징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골천인인 화회에 초점을 맞추니 골천이 제의적 공간이 되고 황조가는 봄을 맞이하여 겨울 동안의 주점을 거친 왕비 송씨가 재생하고, 그 곡모가 곡식의 재생을 가져다 준다는 의식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필자가 골천을 수렵과 농경이 공존하는 중심지로 보는 것과 일치하며, 나아가 황조가가 의례시 불러지는 의식요라는 점도 동일하다.

6. 결 론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논의한 결과 황조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1) 정병욱, 앞의 논문.

22) 허남춘, 「황조가의 제의적 성격」(1), 『성대문학』 제24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53~164.

- 1) 황조가는 산신 의례 시 불려지던 서사 무가 중 삼입가요이다.
 - 2) 배경설화는 고구려가 건국되던 시기의 신화적 질서가 혼란시되고 자주의식이 싹을 틔우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3) 유리왕과 화회 치회의 갈등은 농경 위주의 토착문화와 수렵 위주의 수렵문화와의 갈등이다.
 - 4) 유리왕은 무당과 동계이며 주몽을 이어 왕위에 올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회를 택한 것은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농경으로 삼았다는 민중의식의 설화적 표현이다.
 - 5) 화회와 치회의 쟁투에서 화회의 승리는 한에 대한 사대사상에서 탈피하여 자주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황조가는 외세를 배격한 자주성 확립의 표현문학이다.
-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황조가를 서정시라고만 단정하여 가르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일수록 고전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작품을 폭넓게 이해하고, 학제적 연구방법에 의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